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구약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9장 「구약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약 209~212쪽. 장 번호는 바로 뒤가 20장이어서 붙인 추정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앞 장들의 내용을 다시 짚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최고의 전달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구약)의 권위를 보증해 주신다. 근거는 셋이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이루려고 행동하셨다.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성경”, “기록되었으되” 같은 권위의 말로 부르셨다. 유대 전통과는 거침없이 부딪치셨지만 성경의 권위만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셨다. 끝으로 프레임은 세 본문(마태복음 5:17-19, 요한복음 5:45-47, 요한복음 10:34-36)을 차례로 풀어서 결론을 확인한다. 구약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라지지 않고, 믿음의 전제가 되며, 결코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다.

📜 절별 정리

📜 1. 말씀이신 분이 말씀에 순종하셨다

프레임은 7~8장과 10장의 결론을 이어받아 시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 그런데 구원 계획 안에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일이 없다. 성부께 받은 권한으로 일하셨고, 성부가 가르치신 것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주된 화자”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1.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자 말씀의 화자
2. 성부의 권한으로만 일하고 말씀하심
3.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제자도의 기준
4.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보증하신다

요한복음 5:36

예수님은 성부가 맡기신 일을 하러 오셨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8:42

스스로 오지 않고 성부가 보내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18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권한도 성부께 받았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28

성부가 가르치신 대로만 말씀하신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5:15

성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 2. 예수님은 구약에 매여 사셨다: 예언의 성취

복음서는 예수님이 성부와 직접 나누신 소통만 따르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도 매여 사셨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을 이루려고 일부러, 그리고 거듭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셨다. 체포되실 때도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칼을 거두게 하셨다. 또 예수님은 구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 구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로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거꾸로 예수님도 구약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아들의 삶마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1. 성부와의 직접 소통 + 기록된 말씀
2. 예수님은 일부러 예언을 이루셨다
3. 구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
4. 아들의 삶도 기록된 말씀을 따랐다

마태복음 4:14

갈릴리 사역이 선지자의 말을 이룸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8:17

병 고치심이 이사야의 말을 이룸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12:17

조용히 섬기시는 모습이 예언을 이룸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3:35

비유로 가르치심이 선지자의 말을 이룸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54

체포를 받아들이심: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5:39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25-27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신을 풀어 주심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45-47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 3. 공동 기반: 예수님과 반대자들이 함께 서 있던 땅

예수님은 구약 구절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셨다.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반대자들 사이에는 “공동 기반”이 있었다. 공동 기반이란 논쟁하는 양쪽이 함께 받아들이는 전제를 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저 상대의 생각에 맞춰 주신 것은 아니다. 유대 전통이 틀렸다고 보시면 예수님은 주저 없이 반대하셨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만큼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다. 프레임은 예수님이 속으로는 다른 성경관을 품고 계셨다는 증거가 티끌만큼도 없다고 단언한다.

1.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
2. 반대자들과 '성경 권위'는 공유하셨다
3. 전통에는 거침없이 반대하셨다
4. 성경 권위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음
5. 숨은 다른 견해의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에는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셨다."

📜 4. 예수님이 구약을 부르신 이름들

예수님이 구약을 가리키실 때 쓰신 말 자체가 그분의 성경관을 보여 준다. 첫째,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지닌다는 뜻을 담고 있다. 둘째, 인용할 때 쓰신 "성경"(헬라어 그라페, 그람마타)이라는 말도 같은 무게를 지닌다. 이 대목에서 프레임은 '성경'이라는 용어를 다룬 워필드의 논문을 각주로 소개한다. 셋째, "기록되었으되"(헬라어 게그랍타이)라는 공식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말 한마디로 논쟁이 끝난다. 그 말 뒤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세 번 모두 이 공식을 쓰셨다.

1. '율법과 선지자' = 하나님 말씀인 본문
2. '성경'이라는 말에 권위가 담겨 있다
3. '기록되었으되' = 더 따질 것 없다
4. 광야 시험 세 번 모두 이 공식으로 응수

> **마태복음 5:17-18**
>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심
>
>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마태복음 7:12**
> 황금률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11:13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 예언함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2:5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으로 논쟁하심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2:40

두 큰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3:23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버린 바리새인 책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2:10

“성경에 …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가복음 4:21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7, 10

광야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로 마귀를 물리치심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10

세례 요한에 대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1:13

성전 정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24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31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 5. 마태복음 5:17-19: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약의 본질을 직접 밝히신 첫 본문이다. 이 구절은 산상수훈에서 계명을 다루시는 부분의 서론 역할을 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로 전통적 유대 해석과 다른 의견을 내신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은 계명 자체가 아니다. 마태복음 5:27에서 예수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를 그대로 인용하신다. 그리고 계명이 요구하는 깊이는 외면한 채 문구만 되뇌던 유대 교사들을 꾸짖으신다. 그래서 프레임은 마태복음 5:27-30이 오히려 제7계명의 권위를 강하게 확증한다고 본다. 예수님께 이 계명은 바깥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 욕망까지 다스리는 말씀이다.

1.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이루러 오심
2.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3. '들었으나'는 교사 비판이지 계명 비판 아님
4. 제7계명은 마음의 욕망까지 다스린다
5. 산상수훈은 율법의 권위를 더 깊게 확증

마태복음 5:17-19

율법의 영속성과 작은 계명까지의 권위를 선언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마태복음 5:21, 31

"들었으나" 공식: 전통 해석과 다른 의견을 내는 표지

> **마태복음 5: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 **마태복음 5: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5:27

제7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얕은 가르침을 비판

>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27-30

계명이 마음의 욕망까지 다스림을 보여 주는 확증

>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 6. 요한복음 5:45-47: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두고 반대자들과 같은 편에 서신다. 모세는 앞의 14~15장에서 다룬 구약 선지자의 참된 본보기다. 모세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다. 그러니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곧 그가 기록한 글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어서, 모세를 믿는다면서 실은 그의 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로 등장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 자신을

조건이라고 하신다. 따라서 모세의 말은 기록된 지 천 년이 넘도록 무게를 잃지 않았다.

1. 모세를 믿는다 = 그의 글을 믿는다
2. 모세의 글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3. 모세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음의 전제
4. 반대자들은 믿는다면서 실은 안 믿었다
5. 기록된 말씀은 천 년이 지나도 유효

> **요한복음 5:45-47**
> 모세의 글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로 묶음
>
>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 7. 요한복음 10:34-36: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웠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깊은 설명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대신 그들도 인정하는 성경에 기대어 답하셨다. 프레임은 이것을 “형식적 논증”이라 부른다. 상대가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출발해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이라는 뜻이다. 시편 82:6은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신"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성부가 거룩하게 구별해 세상에 보내신 분은 그 말을 쓸 이유가 훨씬 더 크다. 눈여겨볼 점이 둘 있다. 첫째, 예수님은 시편을 “너희 율법”이라 부르신다. 유대인의 구약 분류(율법서·예언서·성문서)에서 시편은 성문서에 속한다. 그래도 율법이라 부르신 것은, 성경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문이 율법처럼 따라야 할 권위를 지녔다는 뜻이다. 둘째,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이다. 이 논증 전체가 이 전제 위에 서 있다. 시편의 한 구절도 성경이기에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며, 그 아래로 내려갈 수

1. 신성모독 비난에 성경으로 답하심
2. 시편 한 구절의 '신'이라는 말에 기대심
3. 시편을 '너희 율법'이라 부르심
4. 성경의 일부면 곧 구속력 있는 권위
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0:34-36

시편을 근거로 신성모독 비난에 답하신 논증 전체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시편 82:6

지도자들을 "신"이라 부른 구절. 예수님 논증의 출발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 전체가 권위를 잃지 않는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결코 그 권위를 상실할 수 없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논쟁하는 양쪽이 함께 받아들이는 전제. 여기서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이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가리키던 당시의 표현이다.

율법서·예언서·성문서
유대인이 구약을 세 묶음으로 나눈 방식. 시편은 셋째 묶음인 성문서에 속한다.

그라페·그람마타(graphe, grammata)
신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헬라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게가 담겨 있다.

게그랍타이(gegraptai)
“기록되었으되(기록되어 있다)”라는 헬라어 공식. 이 말이 나오면 더 따질 것 없는 최종 근거라는 뜻이다.

성취
구약이 미리 말한 것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일점일획
히브리 글자 중 가장 작은 글자와 글자를 구별하는 작은 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는 뜻이다.

형식적 논증
상대가 이미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해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고 논리의 틀로 답하는 방식이다.

인격적 말씀
프레임의 핵심 개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소통이라는 뜻이다.

적응설
예수님이 진리와 상관없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맞춰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주장.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성부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신 말씀의 화자이시다.
-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려고 사셨고,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성경”, “기록되었으되”라는 권위의 말로 부르셨다.
- 예수님은 전통은 비판하셨지만 성경의 권위는 반대자들과 공유하셨다. 다른 성경관을 품으셨다는 증거는 없다.
- 구약은 일점일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세의 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제다. 성경은 폐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증하신 구약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으로 받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8편 ·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나 · '성경이 이르시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